

법정 522 54
미리사 3124
복리법 34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청년의 힘으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 학생법정을 소개합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 법정

-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로 얼룩진 폭력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21세기를 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노예문제이다.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각국의 '위안부'들이 증언하고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 내전 시 여성들에 대한 집단 강간 사실이 표면화되면서 무력갈등 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쟁범죄이며 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아시아 피해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권고를 무시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국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유산인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안부'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작업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에 의한 여성에 대한 국가 범죄였다는 이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여성들에 의한 위안부 전범자를 처벌하는 법정을 열기로 한 것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 세계 인권의 날과 태평양전쟁 시작의 날인 12월 8일을 전후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들과 개인 그리고 국제법과 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법정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부의 전쟁책임을 고발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 2000년 법정은 왜 필요한가? : 위안부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도쿄재판, 다시 열자!

1997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내전 시 성폭력 등 전시 무력갈등 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전세계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 최대 초점은 이제까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가 충분히 처벌되었나이다.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의 전범법정은 여성들에 의해 비록 불충분하긴 하지만 성폭력도 전쟁범죄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었다. 현재 유엔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여 항시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전쟁범죄 처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위안부 관련범죄는 여전히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불충분한 것이 책임자 처벌의 문제이다. 1993년 한국에서 책임자 처벌을 제기한 이래, 각국의 피해자들은 '책임자의 처벌 없이 깨끗한 명예의 회복은 없다'고 호소해

왔으며 따라서 누가 책임자였는가를 밝히는 진상규명활동은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 되었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시 저지른 전쟁범죄는 도쿄재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쿄재판에서 위안부 관련 전범자들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00년 법정은 위안부 전범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도쿄재판을 비롯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각국에서 이루어진 전범재판을 재검토하고, 여성들의 힘으로 '위안부'관련 전범자들을 처벌하는 법정을 열고자 한다.

다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말한다.

- 2000년 학생법정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과 같은 길을 갑니다.

: 여성인권과 평화가 숨쉬는 21세기를 향한 공동의 전망을 갖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의 지향을 갖습니다.

- 2000년 학생법정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법정과 다른 걸음을 걷습니다.

: 2000년 법정이진상규명과 법률적 절차를 거쳐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진행되는 반면, 학생법정은 현재적 의미들을 담아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점검하고, 논의하며, 이론화 작업을 추구하는 학술적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각 이데올로기들 간의 쟁점을 형성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여성인권운동의 현주소를 확인합니다.

문제적인 역량 또한 한 공간으로 결집해 내어,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알뜰한. 여성문제운동의 현상과 전형술 창조하려 합니다.

- 사분오열되어 있는 여학생운동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된 논의 속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실현해 봅시다.

- 21세기 학생운동의 새로운 한 모델로서, '여성인권 실현'의 공동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학생운동의 국제적 연대 지점을 모색해 봅시다.

- <학생법정>이라는 틀거리로서, 국가권력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을 실현해 봅시다.

- 가깝고도 먼 시민운동과 학생 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모색해 봅시다.

그러므로 2000년 학생 법정은

2000년 국제법정(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법정)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가 저지른 식민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죄를 묻고 전범들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2000년 학생 법정은 그 피해 할머니들이 겪는 현재적 고통에 주목합니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전범자에 대한 처벌이 갖는 의미들을 여성

인권 전반에 걸친 의미들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작업으로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세미나나 여타의 부대적인 문예행사들을 통해서 법정 틀의 한계와 2000년 본 법정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력분쟁 시 뿐 아니라 일상의 폭력 속에 놓인 피해자와 우리들의 연대(분명히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를 확인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잘라내기 위해 2000년 학생 법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1. 2000년 학생법정의 준비위원회 조직구성

학생법정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학술, 법률, 기획, 문예, 사무 등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서울여, 경희, 명지 국민, 한양(안산), 중앙(안성), 시립, 이화, 성신, 성균관대 등에서 개인이나 학생회 단위로 참여하고 매주 10여명 이상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여 학습과 시나리오 작업 그리고 실무 모임을 통해 내용 마련과 행사 기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사무국: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진행과정 점검(수익사업), 역할 분담과 연락체계, 2000년 1월 이후에는 2000년 학생법정 참가단 조직, 단계적 선전 작업
- 학술분과: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둘러싼 담론들을 연구하고, 세미나를 통해 이론화 작업
- 법률분과: 학술분과와 논의를 통해, 법정의 실질적인 형태의 진행 방식 구상
- 문예 분과: 2000년 학생법정과 동시에 진행 될 문예 사업 담당.
- 시나리오 분과: 학생 법정에 관련된 시나리오 구성 작업.
- 실무 분과: 법정의 전체적인 틀기리를 확정, 제정과 홍보작업
: 2000년 2월부터 실무분과와 시나리오 분과의 2체제로 구성원을 재구성하여 법정 기획준비 중

2000년 학생 법정의 활동 목표입니다!

2000년 학생법정 진행에 대한 고민은 1998년에 학생회별로 제기되어 1999년 1월 8일 첫 연대모임에서 정식 제기되었습니다.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모임(준비위) 하나의 사업 치루기식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성억압의 구조가 침예하게 나타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의 적은 힘이나마 역할을 찾아가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주역이 될 것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활동의 중심 역시 2000년 4월 학생법정을 성사하기 위한 실무적인 활동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고 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시아 최대 피해국인 한국학생들의 활동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2000년 학생 법정의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입니다.

학생법정은 1999년 1월부터 모임을 시작하여 6월 개이맥두갈 초청 국제세미나가 진행되기까지는 학생이 주축이 되어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개이맥두갈 초청 국제세미나와 일본 오비린대학교 학생들과의 한일 워샵(1999년 8월 25.26)을 계기로 학생중심의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였

습니다.

기본적인 준비위의 활동은 주2회 정기모임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관련(무력갈등과 여성폭력 등....) 문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학생법정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핵심사업

12월 18일: 공개세미나 / 구술사를 통해서 본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의 당시의 삶과 귀국후의 삶을 중심으로 "기억에서 역사로"

2월 17-20일: 한일간 학생교류 / 한일 학생양국에서 학생법정을 위해 각자의 역할들을 논의합니다.

3월: 학생법정 기획홍보1 "2000년 4월 학생법정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4월초: 학생법정 기획홍보2 "2000년 4월 학생법정 준비현장과 학생법정을 미리 본다."

2000년 4월27,28,29일: 일본군 성노예 학생법정 진행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기획가안: 한일 학생이 함께 체험하는 역사탐방

"새 세기엔 사라져야 할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을 찾아가다"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기지촌 여성의 현장, 수요시위, 독립기념관, 서대문 형무소등)

2. 준비위원회 행사 진행 일정

<1999년 상반기>

- 1월 8일(1999년): 이대여성위원회(이하 이대여위) 수요시위 참가단 교육에서 처음 제안
- 1월 13일: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학생들과 만나 제안, 논의
: 각지부 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학생들과 회의통해 장기사업으로 받아 안을 것을 제안, 긍정적으로 수용
- 1월 13일: 수요시위(관악 여성모임 연대 주관)이후 관악과 이대여위와 외대(양산) 학생들과 만나 제안, 긍정적으로 수용
- 1월 27일: 수요시위(참여연대주관)통해 홍대,건대, 나우누리 통신동호회 미즈와 만나 논의
- 2월 3일: 이대여위, 관악여모, 홍대, 전여대협과 만나 구체적 논의 : 세미나 계획
- 3월 19일: 학생법정 세미나
- 3월 20일: 오부치총리방한을 기해 배상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에 학생법정준비위원회에서 협조
- 3월 28일 대학생 활동가 교육(1차) : 전여대협 소속 학생 다수 참가(경북대, 고대서창), 관악, 이대여위, 홍대, 명지대, 서울여대(총 14인)
- 4월 14일 대학생 활동가 교육(2차) : 전여대협간부, 명지대, 홍대, 감리교신학대학, 중앙대학교, 이대여위(총 10명)
- 4월 28일 대학생 활동가 교육(3차) : 숙대, 홍대쿠사, 명지대, 전여대협, 홍대, 성대,서울여대, 경기대
- 5월 7일 대학생 활동가 교육(4차)
- 6월 4일: 게이 맥두걸 국제 실포지울 개최
- 8월 25,26일: 한·일 학생이 같이 하는 "전쟁과 여성" 워크샵 진행
- 8월 27일: 김창록 교수님 만남법정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음.
- 9월 4일: 정식 발족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날.

준비의 미비함으로 연기하기도 하고 이날 장소 및 실무적인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9월 29일도 일정 확정

9월 29일: 홍익대학교 와우관 세미나실에서 학생법정 발족식 진행

총진행: 송해/ 사회: 김/ 환영사: 정훈/ 경과보고: 지연/ 이후보고: 지현/ 발족 선언문:

현호/ 문예단: 우리나라, 서울문예패/ 참가인사: 윤정옥, 여순주, 정진성, 김혜원 선생님,

양미강 총무님 등/ 참가학교: 이대, 서울여대, 명지, 경기, 홍익, 성균관/ 이후 뒤뜰이 진행

일시	주자료	보조자료 및 강연	발제자	특기사항
3월 28일	① '위안부' 개념과 호칭문제 ② '위안부' 정책형성의 일본측 역사적 배경 ③ '위안부' 정책형성의 조선측 역사적 배경	김은례 할머니 증언 양미강 총무 강연 "한국의 여성운동에 있어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운동이 갖는 의미"	어린이, 수수, 혜영	현재 각 캠프 진행 상황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있으나, * 현재 4차 까지 진행된 대학생 활동가교육의 논의 내용을 개별 캠프에서 소모임 및 학습을 통해 공유하는 형태로 논의를 확산하고 있다. * 방학중 실시될 "전쟁과 여성인권 캠프" 와, 하반기 개별 학교의 모의 법정 진행을 통해 활동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4월 14일	①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② '위안부' 생활에 관한 연구	영상자료 "가난을 매수하라" "State Accountability..."	승해, 아이,	
4월 28일	①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② '위안부'의 귀환: 중간보고 ③ '위안부'의 귀국 후 삶의 경험		명지대, 혜영, 수수	
5월 7일	① 조선의 식민정책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야마시타영애, 강선미 논문	수수, 끼리	
5월 중순(예정)	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②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③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상의 문제점			
5월 말(예정)	①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	맥두갈 보고서 맥두갈 보고서의 의의(강연)		
6월 초(예정)	맥두갈 초청 국제세미나로 종화			
6월 중순	학생법정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	조직 구성 및 역할, 일정 논의		
6월 말	학생 법정 공식 발족			
7월	실행논의			
8월	전쟁과 여성인권 캠프			
하반기	각 학교 모의법정 진행 협력			

<1999년 하반기에서 현재>

- 10월 2일: 11시 정대협에서 회의 진행
- 10월 4일: 정대협
- 10월 7일: 6시 30분(일어 스터디 시작)
- 10월 9일: 10시 부위원장 만남
- 10월 11일~15일: NGO 대회 열려(학생법정 홍보부스 지킴이)
- 10월 14일: 일어 스터디
- 10월 20일: 부위원장
- 10월 21일: 7시 모임(MT준비모임)
- 10월 23일: 10시 정대협에서 학생법정 정기모임
- 10월 30/31일: 나뉘의 집에서 MT 진행
- 11월 4일: 경북 영양으로 증언 작업(강정숙, 표창진 선생님, 승해, 수연)
- 11월 4일: 경북 영양으로 증언 작업(강정숙, 표창진 선생님, 승해, 수연)
- 11월 6일: 학생법정 정기 학습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비사) 발제 · 1장
- 11월 8일: 6시 30분 기획분과 모임(유지, 수수, 승해)
법정 기획의도, 일시 및 장소, 핵심내용 1차 기안으로 정리

- 11월 11일: 법률분과 첫모임 진행(승해, 지현, 혜경, 현호, 수연)
 관련 자료수집(논문: 승해, 수연 국제법: 지현 유엔보고서: 혜경, 조완다코소보: 현호 등경
 재판: 지현 한일협약(미국개입): 혜경 ICJ ICR: 현호)
- 11월 13일: 고려대학교 이종연 변호사님 수업 청강(승해, 풍풍, 수연, 지현)
- 11월 16일: 공개세미나 준비를 위한 모임(람, 승해, 수연·이대에서 진행)
- 11월 17일: 학생법정 전체모임(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학생법정을 만들 것을 결의하는 자리로 상징
 했으나 참석자 적어 각자가 맡아 준비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함. 수연, 수수, 지현,
 승해, 현호)
- 11월 18일: 법률분과 모임(5시 정대협 사무실: 혜경, 수연, 현호, 지현, 승해)
 법률분과 1차 모임에서 각자가 맡은 자료들 준비해서 오기로 하였으나 그러질 못했다. 모
 아진 자료는 PCA, ICJ 권고안)
- 11월 20일: 전체 학생법정 모임
 그 동안 충분히 합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탓에 학생법정을 그리는 상이 조금씩 달
 랐던 부분이 일정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문제의식을 가질 만큼 고민들이 성숙하였다는
 반증일 것이다. 정말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어린, 수수, 수연, 혜경, 지현, 승해)
 이후 학습시간과 실무모임을 2차례 가질 것을 결정하고, 다음 학습모임을 11월 22일 오후
 8시에 이대여위에서 보기로 하고, 전체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보기로 함.
- 11월 22일: 대전증언 참가(강정숙 선생님, 현호)
- 11월 22일: 학생법정 학습모임(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정책수립과 전개)
- 11월 23일: 유네스코 협력 동아리 결정,
- 11월 24일: 협력동아리 담당간사 만남
- 11월 30일: 학생법정 수요시위 준비를 위한 모임
- 12월 4일: 10시 학생법정 정기모임(공개세미나 기획 및 준비점검),
 유네스코 협력동아리 대표자 간담회(2시 유네스코 본사)
- 12월 9일: 공개세미나 발제내용 확정을 위한 정기모임과 학생법정 대표자 일본 방문에 따른
 논의(7시 정대협)
- 12월 10일~14일: 일본 VAWW-NET JAPAN 초청으로 학생법정 대표자 일본 방문(승해)
- 12월 17일: 공개세미나 마지막 점검을 위한 정기모임(7시 정대협)
- 12월 18일: 공개세미나 진행(3시 정대협: 기억에서 역사로)
- 12월 20일: 일본 군인/군속 할머니 증언(수연, 강정숙 선생님, 현정)
- 12월 22일: 할머니 추모회 및 학생법정 정기모임(5시 정대협)
 분과정리(학술:람,승자,시야,오이,수연)
 (법률:혜경,지현,승해,현호,탱이)
 (문제:어린,수수,풍풍,현정,중앙대,유지,서울여대,정훈)
 (사무:수연,승해,수수)
- 12월 30일: 학생법정 송년회 겸 일본 방문 일정에 대한 논의, 정기모임 확정(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고 수요일은 학습, 금요일은 실무적 논의 모임을 진행
 한다. 그리고 매주 비공식 일정으로 분과모임을 1회 진행한다.(승해,수수,람,시야,탱이,현호
 ,수연,승자,어린,지현) 학습진행(테러의 재현.발제: 람)
- 1월 4일: 수요시위 주관을 위한 문제판 마련 모임(승해,지현,어린,수연,수수)

- 1월 5일: 392차 정기수요시위 학생법정 준비위에서 주관
정기학습 진행(천황제 국기와 성폭력: 어딘,승해,수수,수연,오이,잡,탱이,지현) .

·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학습과 학생법정 실무논의를 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거의 매일 학생법정 모임을 열어내면서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3. 학습, 세미나 진행 일정 및 내용

현재 내부 세미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를 텍스트로 선택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보조자료 참고(천황제와 성폭력, 근대천황제도, 태러의 채현, 동경재판등 전후재판 관련자료)와 관련자 강연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학생 법정 기획안

일정: 2000년 4월 27,28,29일 [확정]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소극장
슬로건/로고: 미정

홍남.김민. 3A-74년등리행.
대학생들
· 참여하는
2000년
13명

학생 법정 행사 일정

	27일(목)	28일(금)	29일(토)
오전		1회기: 직접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결문 작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오후	식전행사/문화공연 개막식 기간활동보고 Opening Seminar	2회기: 천황제에 대한 처벌	판결과 대동제 할머니의 건강 축원제와 추모제 어울림의 마당
저녁	개회선언 각 회기별 상황설명과 일정 소개	3회기: 가부장제에 대한 처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음악회, 대화	폐막선언과 폐막식 진행
기타	부대 행사: 바자회, 영화상영, 전시회, 참가단위 문화 공연, 지문초상 작업과 같이 이 기간중 함께 할 수 있는 작품 만들기 등, 일본학생들과 함께하는 반인권의 현장 역사탐방		

<각회기별 소개>: 학생법정은 다양한 할머니의 경험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모형을 잡아냅니다.

우선 이번 학생법정은 법정의 공간만이 일본군 성노예를 처벌하는 공간으로 삼지않았다. 이는 법정에서 다루어질수 있는 내용이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여 법정은 3회기동안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하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직접적 기억속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연행당시의 이유를 제공한 사람(학생법정은 민간업자인 일본인과 조선인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두사람은 모두 현재 한국과 일본내 굴지의 기업인이다.)과 정기적 위안소 방문이 가능했던 일본인 장교(학생법정에서는 심한 구타로 현재까지 할머니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당시의 장교로 지금 현재는 국민기금의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내 참의원이다.)를 선정하기로 했다.

2회기에서는 천황제를 다루는데 천황이 당시 최고 전범자로 어떠한 근거로 처벌할 것이며, 천황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일본 학생들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완성할 것이다.

3회기는 가부장제를 다루는데 할머니의 피해사실들을 가부장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머니의 증언을 구성할 것이다. 연행당시의 피해자의 상황, 위안부로서의 경험에서의 가부장성, 귀환후 경험,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합니다.

노년 권속 초점
누군가 이대왕리.
여성운동.

각 분과별 계획안

- 1. 문예 분과 :
- 1. 법률 분과 :
- 1. 학술 분과 :

2000년 학생 법정을 함께!!! 전 세계인의 관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인권과 평화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00년 학생법정 홈페이지: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jdh@peacenet.or.kr/

Daum. net에 학생 법정 카페가 있습니다.

: 인문영역에 들어가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청년의 힘으로!"를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학생 법정은 요구한다!

-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진상을 밝히고 배상하라!
- 1.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 1. 전쟁 중, 무력 갈등시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즉각 중단하라!
- 1. 귀국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돌 가중시켰던 가부장제의 모든 요소를 단호히 반대한다!
- 1. 반여성적인 다양한 제도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통해 얼룩진 20세기 역사를 마감하고 여성인권과 평화가 존재하는 희망의 21세기를 청년의 힘으로 건설하자!
- 1.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규명하고 후대에 올바르게 교육하라!

2000년 12월 국제법정과 함께하는 2000년 4월 한국학생법정 준비위원회

한·일 학생 교류회 일정 보고

<2월 17일>

11:20 김포공항 출발

14:30 나리타공항 도착

19:00 송신도 할머니 항소심 <<제1회 口頭弁論報告 集회>> 참가

주최: 在日の慰安婦를 지지하는 모임

약 60여명이 참가, 변호사 보고, 한국 학생법정 소개, 이후 교류회등으로 진행

00:30 숙소(SCAT)도착: 송신도 할머니 집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과 평가회 진행

<2월 18일>

10:30 昭和館 방문

개관일: 2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9년 4월

관리: 재단법인 유족회

진시: 1935- 1955년 당시 일본인들의 생활상(일본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전쟁과 관련한 진시는 하지 않는다고 함.)

구성: 학예실, 영상자료실, 음악실, 도서관, 전시실

12:00 야스쿠니 신사 방문 710416. 132416. 132416. 132416. 132416.

15:30 아시아 여성자료센터 방문(일본내 여성운동의 역사 및 단체소개)

18:00 VAWW-NET Japan 방문

:VAWW-NET Japan 소개/ 한·일 학생법정 사무국 소개

22:00 숙소 도착

(일본학생들과 오늘 일정에 대한 평가:일본 학생들이 방문지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2월 19일: 한·일 학생 교류회>

9:30 YMCA 회관 도착

80% 70-80% 85% 90% 95% 100%

10:00 일본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과 2000년 국제법정에 관한 마쓰이 아요리씨 강연

13:30 교류회 시작

14:00 한국 학생 법정 소개

15:00 강덕경 할머니 비디오 상영

15:30 전일본군의 증언

16:30 질의 응답

17:00 토론/ 교류회 참석 소감. 학생법정을 위한 의견교류

21:00 교류회 종료

00:00 교류회 평가와 이후의 일본 학생들의 참여 방식에 관한 제언

: 현실적으로 일본학생들이 4월 법정에 모두 참석하기는 불가능하여 대표단 형식으로 참가 고민중

<일본 학생들의 참가에 대한 제언>

1. 앙케이트 조사를 통한 참여: 일본학생들의 천황제 혹은 천황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하여 보고
2. 모의 법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천황제, 피고, 원고측에 논거에 뒷받침 될 만한) 공유
3. 일본측 학생(VAWW-NET Japan의 사무국)들 소개하는 시간 따로 배정해 주었으면 한다.
- ✓ 4. 한국 학생법정의 배심원 제도를 두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
5. 토론회(4월 29일 오전 예정) 일정한 주제가 빨리 정해졌으면 한다.
6. 학생법정을 위한 진행 상황과 자료들을 공유합시다.
7. 학생법정 전에 공동회 집회를 한일 각국에서 진행했으면.....

<2월 20일>